

▶ 도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전 -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여성 미술, 현대문화 주 트렌드 사회 속 여성에 대한 질문 던지다

아시아권 10개국 24명 작가 작품 전시
현실에 대한 변화 갈망하는 참모습 담아내
전시회는 내달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여성들. 활동 반경을 넓혀 감에 있어 미술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현대문화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한 여성 미술을 조명, 아시아권 대미술전2017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을 내달 1일부터 개최한다.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조명한 이번 전시는 아시아의 현대성 그리고 아시아 청년작가들에 이은 연작시리즈. 미술관이 이들 주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왔던 문제들이 아시아의 전반적인 상황과 유사하고 그 갈등과 모순·진통·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와중에도 작가들은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개별적으로 성숙하게 표출하며 새로이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전은 급변하는 아시아권 현대 사회 속에서 '여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전시에 참여하는 아시아권 10개국 24명의 여성 작가들은 녹록치 않은 현실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참모습과 상흔을 가감 없이 통렬하게 때론 절실하게 담아낸다.

일본의 류피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모한 트랜스젠더 작가로서, 신체적 변화를 38장의 사진으로 담아 작품화시켰다.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넘어 몸소 그 변화를 실천하고 현재 여성으로서의 삶을 기록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조숙진은 60여 개의 버려진 의자들을 손질하여 작품으로 전환시킨다. 커다란 공간에 놓이게 되는 그 의자들은 다분히 명상적이고 동시에 오브제적이다. 섬세하게 손질된 그 모습에서 여성성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 전위미술의 기수였던 정경자가 자신의 여성적 삶과 사회성을 그린 회화 작품 9점을 걸 예정이다. 그의 그림 속에는 꿈과 눈물, 한국성 등이 얼룩져 있다. 그림은 쉽게 삶을 요해하면서도 초현실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외에도 베이징의 섹스 워커들이 마치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화장실 공간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레스비



↑ 부블리 바르나작

언 작가로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누드가 되어 만든 비디오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현대 사회의 성에 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킨다.

장석원 관장은 "이번 전시는 여성 미술가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페미니즘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여성 미술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꼭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며, 페미니즘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개막 이튿날인 9월 2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제 여성미술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아시아 여성미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아시아 여성미술의 특별한 정황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 여성미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전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 조숙진작

“웃어요 전주”

전주문화재단, 27일까지
예술선물배달부 참여자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을 진행, 27일까지 전주의 시민과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선물배달부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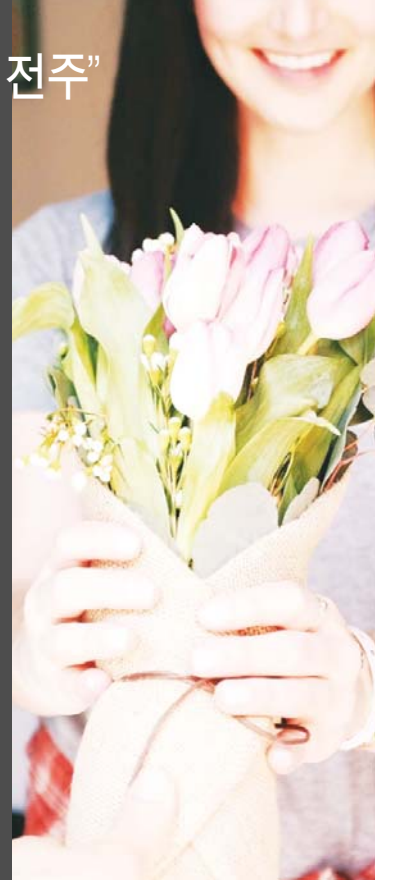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는 전주 내 문화외계층인 재가어르신에 대한 예술적 재능을 보유한 시민이나 예술가들이 전주시 생활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1대1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치는 계층 맞춤형 문화수혜 사업이다.

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시 독거노인복지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수혜자 선정과 연결, 생활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술선물배달부의 모집 분야는 초상화·공연의 2개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분야별 최대 10명으로 총 20명이다.

선정된 시민·예술가에게는 9월부터 10월까지 방문하는 세대 당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예술선물배달부의 참여필증을 교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 대학생마당놀이축제, 전주국립무형유산원서 개최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젊음이 신명나는 마당놀이와 만난다.

2017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가 23일 전주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이 주최하는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는 농악, 탈춤·놀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동아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22회를 맞이하는 대회는 민속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축제이자, 국내 최고의 마당놀이 경연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12개 대학교의 '탈춤·놀이, 농악' 동아리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경연을 펼친다.

또한 각 동아리의 무대를 응원하는 응원단의 공연도 함께 무대에 올라 행사의 불거리를 더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제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25일부터 이틀간 부안예술회관에서 '판타스틱 정글' 무대

2017 판타스틱 페스티벌의 두 번째 무대 '판타스틱 정글'이 오는 25일과 26일 2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판타스틱 페스티벌은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며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포스댄스컴퍼니의 무용과 클라무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무대에서 만나 무용수들의 생동감 있는 동작에 오케스트라의 현상 연주 무대를 더욱 풍성하고 활기치게 꾸밀 것이다.

판타스틱 정글은 신비한 정글에서 펼쳐지는 환상동화 이야기로 전설로만 존재하는

신비한 인간 새인 페리온을 잡으려는 자들과 야생 동물들과 쫓고 쫓기는 다이내믹한 공연이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 정글을 생동감 있게 무대에 구현하고 무용의 다양한 표현들이 판타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30분,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판타스틱 페스티벌은 타이나미한 무대에 무용과 오케스트라가 만나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으로 다양한 상상력과 다차원, 입체적인 무대 세트를 통해 부안예술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이복수 기자

청정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

제 21회 그창 해풍고추 축제

2017년 8월 26일 | 토 | ~ 8월 27일 | 일 | 2일간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

주최·주관 : 고창해풍고추축제위원회

후원 : 고창군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해리농협 고창군지역농협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